제주의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과 도덕적 덕성

- 설문조사를 통한 시론적 탐색 -

강봉수*

<차례>

Ⅰ. 서론
Ⅱ. 연구방법에 대하여
  1. 윤리문화적 접근의 필요성과 한계
  2. 이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Ⅲ.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징
  1. '으망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
  2.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
  3.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
Ⅳ. '으망진' 사람의 도덕적 덕성
  1.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
  2. '으망진' 사람의 도덕적 덕성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사회에서 예로부터 특정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용어로 전해오는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것의 도덕적인 사람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아울러 '으망진' 사람의 특성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보기 위해 이와 비교될만한 또 다른 평가적 용어인 '벨라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내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첫째, '으망진' 사람은 당차고 야무져 기죽지 않고 용기 있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다. 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둘째, '으망진' 사람은 때로 혹은 보는 이에 따라 자칫 잘 난체하고 약삭빠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난체하고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은 '벨라진' 사람의 인성적 특징이다. 셋째, '몰맹진' 사람은 '으망진' 사람과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시원찮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넷째, '으망진'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사려적 동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위하는 근대 의무윤리학적 의미의 도덕적인 사람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다섯째, '으망진'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과 관련성이 있다면 덕의 윤리학적 관점에서이다. 덕의 윤리학적 전통에서 '사려'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행위의 동인이다. '으망진' 사람은 사려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섯째, 덕있는 사람은 특정사회의 덕목들을 고루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일관된 인격적 특성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으망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으망진' 사람은 용기, 책임·협동, 신의, 공정성, 공동체의식, 근면·성실, 타인배려, 민주성, 정직, 절제 등의 덕목을 습득한 덕성의 소유자이다.

주제어 :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 도덕적인 사람, 덕있는 사람

Ⅰ. 서론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 받기를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찬사 중에 으뜸은 아마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한다.[1] 대체 '멋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기에 한국인들에게 강한 매력을 지닌 찬사로 받

1) 김태길, "외형의 멋과 내심의 멋", 최정호 편, 『멋과 한국인의 삶』(서울: 나남출판, 1997), 27쪽.

아들여지는 것일까? 김태길에 따를 때, '멋있는 사람'이라는 말 가운데는 '아름다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 또는 '능력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비록 겉모습이 출중하더라도 인품이 졸렬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멋있다'는 찬사를 바치지 않는다. 반대로 비록 학식이 많고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더라도 겉모습이 너무 초라하면,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한다. 外形의 아름다움과 內心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는 '참으로 멋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2] 이처럼, '멋있는 사람'에게는 내외적인 아름다움의 함축이 들어있기에 한국인들에게 강한 매력을 지닌 찬사의 가치어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멋있는 사람'이라는 평가적 용어가 한국인에게 매력적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멋'이라는 가치가 가지는 내용적 함축보다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관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돈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멋있는 사람' 등등의 평가적 용어 중에 '멋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가치체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멋'이라는 가치는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어울리는 이른바 '한국적 가치'라 할만하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은 한국인의 이상적 삶의 모델이라 할 수 있을 법 하다. 왜 한국인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멋'이라는 가치와 '멋있는 사람'이라는 찬사를 더 선호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달리 대답할 길이 없다. 그냥 그것이 한국인의 정서이고 한국인의 문화이다. 특히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성적 특성에 대한 평가적 용어이고 그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그것을 한국인의 윤리문화라고 여긴다.

---

2) 김태길, 같은 책, 같은 쪽.

제주인들도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멋있는 사람'이라는 찬사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인성적 특성을 평가하는 가치어로 '으망진 사람'이라는 평가어가 쓰여 왔다. 이와 더불어 '몰맹진 사람', '벨라진 사람'이라는 평가어도 같이 쓰여 왔다. 말하자면, 제주인들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온 '으망진', '몰맹진'(혹은 몰명진, 몰멩진), '벨라진'(혹은 밸라진, 뻴라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평가적 용어 중에서도 '으망진'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들에 비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또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사용해온 평가적 용어인 것 같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멋있는 사람'이라는 찬사만큼 선호되는 가치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제주사회에서 '으망진' 혹은 '으망진 사람'은 제주인들이 선호하는 가치이고 긍정적 삶의 모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인의 윤리문화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한국에서 '멋있는 사람', 제주에서 '으망진 사람' 처럼 사람의 인성적 특성을 지칭하는 평가적 용어들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적 가치어들은 이른바 '문화에 의해 매개되는 도덕'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화에 의해 매개되는 도덕을 우리는 '윤리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3] 근대이후의 윤리학은 지나치게 원리로서의 도덕과 윤리적 보편주의만을 지향해왔다. 오로지 보편적 도덕원리만이 모든 특수한 도덕적 기획을 설명해주고, 모든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해 주며, 도덕공동체를 분리하고 에워싸는 악들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윤리적 보편주의이론에서 '도덕적임'이란 한마디로 도덕적 추론능력(moral reasoning)을

3) 이러한 연구자의 '윤리문화'에 대한 개념은 졸고, "제주의 효규범에 대한 윤리문화적 접근", 『윤리연구』 제70호(한국윤리학회, 2008. 9), 89-97쪽 참조.

뜻하는 바, 보편화 가능한 모종의 도덕원리를 자기의 도덕적 관점으로 삼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도덕적인 사람의 전형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근대 윤리학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4] 이들의 가정에 의할 때 저 '멋있는 사람', '으망진 사람' 등과 같은 문화에 의해 매개되는 가치어와 판단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 윤리학적 의미의 '도덕적인 사람'과 '멋있는 사람' 혹은 '으망진 사람'은 별로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차라리 '멋있는 사람'과 '으망진 사람'은 근대이전에 윤리학적 전통이 추구했던 바의 '덕있는 사람'과 관련성이 높다고 여긴다. 덕의 윤리학적 전통에서 이른바 '덕있는 사람'이란

4) 근대 윤리학의 이러한 가정들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편적 도덕원리들은 사실 우리의 도덕적 실천을 합리화시켜 주기보다는 손상시켜 왔으며,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아무 대답도 없거나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나아가 그것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지역적(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규칙들과의 경쟁에서 개인 행위자들의 의도를 이겨내지 못하였다. 예컨대, 플레이샤커(Samuel Fleischacker)는 윤리적 보편주의 이론들의 한계에 대해 다섯 가지 점으로 요약제시하고 있다. ① 보편주의이론은 사회에 대한 인간 개인들의 의존성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② 보편주의 이론들은 특히 서구적, 기독교적, 또는 남성적 경험들을 그들이 가정하는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들에 슬며시 반영하고 있다. ③ 보편주의 이론들은 너무나 조야하고 조잡한 그물망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의 도덕적 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미세한 상황들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④ 보편주의 이론들은 너무나도 일반적이어서 인간들 사이에 놓여있는 역사적, 환경적 차이점들에 민감하게 대응해주지 못하고 있다. ⑤ 보편주의 이론들은 약하고 모호하며 거만하고 제국주의적이다. 그리하여 지난 1980대 중반이후 도덕철학자들은 보편이론으로부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인도해주는 지역체계와 유대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덕 윤리와 공동체주의 윤리 등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그들이다. 윤리적 보편주의이론이 공허하다는 게 그들의 공통된 관점이다. 그 대신, 이제는 일상의 도덕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끌어주는 전통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특수한 도덕적 용어와 판단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레이샤커에 따를 때, 그러한 도덕적 용어와 판단의 원천이란 한마디로 '문화'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다. Samuel Fleischaker, *The Ethics of Culture*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1-3.

하나 혹은 몇 개의 편향된 가치들을 발달시킨 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덕목을 충실하고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통합된 도덕적 성향 혹은 성품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멋있는 사람' 혹은 '으망진 사람'도 그것들이 내포하는 여러 가지 가치요소들을 충실하게 발달시킴으로써 터득된 일종의 성향 혹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덕있는 사람'과 '멋있는 사람', '으망진 사람' 간에는 상관성이 있고, 이 글에서 '으망진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과 관련하여 다루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멋있는 사람', '으망진 사람'은 '덕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문화 맥락적이고 특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덕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가치덕목을 두루 발달시킨 성향이지만, 아무래도 '멋있는 사람'과 '으망진 사람'은 그것들이 내포하는 특정한 가치들을 발달시킨 성향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멋있는 사람'과 '으망진 사람'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윤리문화적 접근을 요한다고 하겠다.[5]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윤리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이들 용어에 함의된 의미와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윤리문화적 접근은 시공을 넘나드는 실로 방대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는 이 용어들이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도 수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일반적으로 가치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보는 이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이들 가치어를 탄생시킨 문화 수혜자들의 주관적 관점을 모아 그 공통점을 찾아보는 접근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한 좋은 접근법이 설문지법이나 전문가 텔파이조

5) 윤리문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자의 개념은 졸고, 앞의 논문, 앞의 책, 91-97쪽 참조.

사법이라 여긴다.

이 글은 제주사회에서 예로부터 특정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용어로 전해오는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것의 도덕적인 사람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으망진 사람'의 특성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보기 위해 이와 비교될만한 또 다른 평가적 용어인 '몰맹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리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여기서는 제주 문화에 익숙하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기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에 대하여

1. 윤리문화적 접근의 필요성과 한계

윤리문화란 문화에 의해 매개된 도덕인바, 여기에는 세 가지 개념적 차원이 있다. 신태그마(syntagmatic chain)로서의 윤리문화, 계열체(paradigmatic set)로서의 윤리문화, 생활문화로서의 윤리문화가 그것이다. 신태그마란 특정시대에 유행한 사상, 이념과 체제, 규범과 제도 등의 주류문화를 말하고, 계열체란 시공을 넘어 유행해온 주류문화들을 구조화시키는 문화문법(cultural grammar)으로서의 문화를 말한다. 고려시대인은 불교와 신태그마를 형성했고, 조선시대인은 유교(주자학)와 신태그마를 형성했고, 현대 한국인은 서양근대사상과 신태그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고려시대인, 조선시대인, 현대 한국인은 각기 다른 결합체적 사슬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소유한 개별의 한국인들이다. 그러나 시대마다 다른 개별의 한국인들을 시공을 넘어 하나로 묶어주는

계열체적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한국인은 조선인, 고려인, 고대 한국인과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문법이 있고, 공간적으로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유교인도 모두 같은 한국인이게 하는 문화문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의 본질이란 항상 계열체적 집합과 결합체적 사슬이 서로 얽혀서 존재하는 잡종이고, 그러한 잡종의 문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생활문화이다. 생활문화란 개인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생활문화에는 오늘날의 주류문화와 조류문화, 그리고 그것들의 심층에 계열체적 집합으로서의 문화문법 등이 다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리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세 차원의 윤리문화의 상관관계에 유의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윤리문화적 접근 혹은 윤리문화 패러다임이라 한 바 있다.[6]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이라는 평가적 용어가 제주문화에 의해 매개된 가치어들인 한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저러한 세 가지 개념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는 윤리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우선, 제주의 윤리적 문화문법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문법과 이들 용어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문화문법을 규명하는 작업부터 연구자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문화문법을 낳은 조건적 요소들[7]을 두루

6)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졸고, 앞의 논문, 앞의 책, 91-97쪽 참조.

7) 문화문법은 전혀 변화가 없는 선험적 구조물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문법은 한 사회의 역사를 통하여 다듬어지는 역사의 산물이지만, 고도의 추상적 구성물(abstract construction)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변동, 혁신, 단절 등의 충격을 견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와 위기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회변동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문법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김형효는 문화문법을 낳게 하는 조건적(conditioning) 요소로 ① 자연적 · 지리적 특성, ② 언어적인 특성, ③ 역사적

살피는 탐구는 여러 전공자들이 함께해야 가능한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연구자는 제주의 무속신화에 함의된 도덕질서를 탐구하여 가설적 수준에서 제주의 문화문법으로 평등성, 가족성, 현세성, 합리성, 온정성, 묘합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8]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제주인들의 긍정적 삶의 모델인 '으망진 사람'의 가치기준에도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연구자로서는 자신할 수가 없다. 사실 제주에서 '으망진 사람' 등의 가치어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주류문화의 변천사를 연구하면서 이들 용어가 등장하게 된 내력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태그마의 변화에 따라 이들 용어가 어떻게 의미규정이 되어왔는지도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또한 실로 지난한 작업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일상의 생활문화에서 이 가치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 친구는 정말 으망진 사람이야." "으망진 체 하지 마라." "이 몰맹진 사람아." "벨라진 놈아." 등등. 우리의 연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란에 '으망진'을 쳐 넣고 찾아보면 아직도 제주사람들이 이 용어를 생생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용어가 대략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에 제주지역의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험의 특성, ④ 의·식·주의 특성, ⑤ 친족구조의 특성, ⑥ 종교·신앙의 특성, ⑦ 인구학적 특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김형효 교수의 관점을 접한 것은 연구자가 대학원 재학 시 93년 1학기에 수강한 "한국사상"강좌(93. 3. 10)에서였다. 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김형효, "한국정신문화의 '이념형'을 찾아서," 한국국민윤리학회, 『한국민족정신 탐구』 93년도 하계 전국대학 교수세미나 자료(1993. 7. 7), 49쪽.

8) 강봉수,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 일반신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24집(사단법인 제주학회, 2003. 12), 29-83쪽.

"**으망진** 일꾼론"을 투표전략으로 내걸었다. 다음(Daum)포털사이트의 신지식란에서는 어떤 외부 사람이 "으망진"의 뜻을 물었는데, 어떤 제주사람이 대답하기를 **"'요망지다'는 당차고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똘망똘망하고, 당차고, 자신감있는....기죽지않고 똑부러진 모습을 요망지다고 합니다.**"라고 했다.[9] 역시 다음사이트 <제주어보존회>라는 카페에서는 제주속담으로 "대정 몽생이 으**망진 체**하여도 목안가면 맥 못춘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대정 고을에 망아지가 제 아무리 **야무진 체**하여도 제주시에 나와 보면 맥을 못춘다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다.[10] 제주의 한 지역항공은 기내방송을 제주사투리로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일단을 인용하면 "손님 여러분, 잘도 반갑수다게. 저는 예, 제주도출신 곱딱하고 **으망진** 승무원이우다. 즐겁게 모시는 ○○항공과 함께 해 잘도 고맙수다"(손님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 곱고 **야무진** 승무원입니다. 즐겁게 모시는 ○○항공과 함께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이다. 이처럼, '으망진'이라는 가치어는 제주인들의 생활문화의 하나이다. '몰맹진'이나 '벨라진'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다음포털의 신지식란에서 '몰맹진'은 **'야무지지 못한'**, '벨라진'은 **'너무 약삭빠르다'**는 의미의 제주사투리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어사전[11]에서는 이들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9)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RN&qid=3bG6a&q=%BF%E4%B8%C1%C1%F8&srchid

10) http://cafe.daum.net/jejuspeech/JGLF/12?docid=1BucG|JGLF|12|20080211040849&q=%BF%E4%B8%C1%C1%F8&srchid=CCB1BucG|JGLF|12|20080211040849

11) 『濟州語辭典』(제주도, 1995).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주어사전이다. 현평효, 김종철, 김영돈, 강영봉, 고광민, 오창명 등이 조사 및 집필위원으로 참여했고, 조사기간은 1993부터 1994년까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주어가 모두 채집되고 기록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지를 보자.

으망지다 : 미련하지 아니하고 영리하거나 똑똑하다.[12]
몰맹지다 : 사람이 용렬하여 야무지지 못하고 시원찮다.[13]

불행히도 '벨라진'은 제주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의 용례와 제주어사전의 의미규정을 고려할 때, '으망진', '몰맹진', '벨라진'의 가치어가 일상의 상식적 수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 수준에서 혹은 사전적인 뜻에서 이들 용어가 지칭하는 사람됨이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명쾌하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면 누구도 제시하기 어렵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용어들은 긴 세월동안 주류문화의 변천을 겪으면서 이어져온 가치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치어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오늘날 생활문화의 도덕적 양식으로써 이 용어들은 문화문법, 현재의 주류문화와 다양한 조류문화 등이 상호 얽힌 채 잡종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에 함의된 가치요소들과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들 용어를 연구하는 데는 윤리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다른 차선의 접근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 『濟州語辭典』, 479쪽.
13) 『濟州語辭典』, 223쪽.

2. 이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글이 채택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설문조사기법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론적 탐색이라는 점에서 다층적 대상을 표본을 삼기보다는 조사대상 그룹을 제주도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로 한정하였다. 그들이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넓은 범주에서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고 본다면 다층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모두 제주도에서 태어나 최소한 30-40년 이상을 제주도에서 살면서 제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조사를 위해 연구자는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구안하였다. 의견조사서 초안을 구안한 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의견조사의 질문문항은 6개항인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1. 제주에서 어떤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용어로 이른바 '으망진'(으망지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귀하께서는 '으망진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표에 예시된 용어 중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고, 이외에 귀하께서 덧붙일 용어가 있다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2. 제주에서 어떤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용어로 이른바 '벨라진', '밸라진', '뻴라진'(벨라지다, 밸라지다, 뻴라지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귀하께서는 '벨라진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표에 예시된 용어 중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고, 이외에 귀하께서 덧붙일 용어가 있다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3. 제주에서 어떤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용어로 이른바 '몰맹진, 몰명진, 몰멩진'(몰맹지다, 몰명지다, 몰멩지다)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귀하께서는 '몰맹진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표에 예시된 용어 중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고, 이외에 귀하께서 덧붙일 용어가 있다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4. '으망진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하고,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귀하의 생각을 기입해 주십시오.

5. 아래의 여러 덕목(가치)들 중에 '으망진 사람'이 소유할(혹은 소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덕목으로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서로간의 관련성과 차이점 등에 유의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답을 안 해도 무관하고, 연구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 기타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위 질문 중 1, 2, 3항에서는 '으망진', '벨라진', '몰맹진'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관련될 수 있는 현대 국어의 가치어로 31개의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기죽지 않는, 능동적인, 당찬, 도덕적인, 똑똑한, 멋있는, 무식한, 배려심 있는, 분별력 있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비겁한, 성실한, 소극적인, 수동적인, 시원찮은, 야무진, 약삭빠른, 어리석은, 용기 있는, 용렬한, 의리가 있는,

이기적인, 인격적인, 자신감 있는, 자제력 있는, 잘난체하는, 적극적인, 정의로운, 주체적인, 지식이 많은, 지혜로운.

위의 31개 용어 중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 각각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여 각각 점수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위 용어 외에 응답자가 덧붙일 용어란을 제시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2항과 3항에서는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의 차이점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요구하였다.

4항에서는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자유롭게 진술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5항에서는 '으망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덕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8개의 덕목을 제시하였고, 역시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고 각각 점수로 환산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18개 덕목의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을 위해 구안했던 덕목을 따랐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14]

경로효친, 정직, 절제, 근면성실,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인권존중, 공정성, 신의, 용기, 책임·협동, 민주성, 애국·애족, 인류애, 공동체의식, 환경보호의식, 성윤리, 정보윤리.

마지막 6항에서는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서로간의 관련성과 차이점 등에 유의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자유롭게 진술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

14) 박효정·정광희·유균상·원현주,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0), 51-76쪽; 박효정·정광희,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연구(II)』(한국교육개발원, 2001), 33-57쪽.

조사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보내 56개가 수합되었는데, 이 중 답변이 충실한 53개의 의견서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 하더라도 그들이 과연 제주문화를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차라리 표집집단을 늘여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장년층 이상의 제주인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나았을지 모른다. 둘째, 질문문항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구안하는 데에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오류가 개입될 소지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5] 셋째, 응답률과 분석방법 상의 문제이다. 특히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저조해서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폐쇄형 질문을 하는 데도 요인분석법 등 사회과학적 통계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상의 여러 한계를 가진 시론적 탐색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Ⅲ.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

이 장에서는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으망진

15) 질문문항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으망진' 사람의 도덕적 덕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5번 문항)으로 '으망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덕성>과 <소유해야 할 덕성>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 이는 이른바 '존재'(Sein)와 '당위'(Sollen)의 문제를 한데 묶어 질문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셈이다. 이러한 점을 응답자들도 지적했고, 그들은 대체로 전자의 관점에서 답해주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의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을,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을 각각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으망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

'으망진' 사람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으망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순서와 같다.

당찬(4.66), 야무진(4.62), 적극적인(4.34), 기죽지 않는(4.26), 능동적인(4.26), 똑똑한(4.25), 자신감 있는(4.21), 주체적인(3.66), 용기 있는(3.58), 분별력 있는(3.43), 지혜로운(3.38), 잘 난체하는(3.32), 지식이 많은(3.15), 약삭빠른(3.06), 불의에 굴하지 않는(2.91), 이기적인(2.74), 의리가 있는(2.68), 자제력 있는(2.55), 정의로운(2.55).

〈표 1〉 '으망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

으망진 사람의 특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죽지 않는	53	1	5	**4.26**	.812
능동적인	53	1	5	**4.26**	.788
당찬	53	2	5	**4.66**	.618
도덕적인	53	1	5	2.19	.921
똑똑한	53	2	5	**4.25**	.830
멋있는	53	1	5	2.42	.842
무식한	53	1	4	1.34	.678
배려심 있는	53	1	4	2.13	.878
분별력 있는	53	1	5	**3.43**	.971
불의에 굴하지 않는	53	1	5	2.91	1.005
비겁한	53	1	4	1.43	.694

성실한	53	1	5	2.53	.890
소극적인	53	1	3	1.32	.510
수동적인	53	1	2	1.28	.455
시원찮은	53	1	3	1.19	.441
야무진	53	3	5	**4.62**	.562
약삭빠른	53	1	5	**3.06**	1.151
어리석은	53	1	4	1.28	.601
용기있는	53	2	5	**3.58**	.842
용렬한	53	1	5	2.28	1.199
의리가 있는	53	1	5	2.68	1.105
이기적인	53	1	5	2.74	1.195
인격적인	53	1	5	2.40	.947
자신감 있는	53	3	5	**4.21**	.631
자제력 있는	53	1	5	2.55	1.030
잘 난체 하는	53	1	5	**3.32**	1.123
적극적인	53	3	5	**4.34**	.618
정의로운	53	1	5	2.55	1.030
주체적인	53	1	5	**3.66**	.898
지식이 많은	53	1	5	**3.15**	.969
지혜로운	53	1	5	**3.38**	.904

<표 1>에서 보듯이, '으망진' 사람은 당차고 야무져 기죽지 않고 용기 있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다. 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보는 이에 따라 '으망진' 사람은 자칫 잘 난체하고 약삭빠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2.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

'으망진' 사람을 '벨라진' 사람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먼저, '벨라진' 사람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벨라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순서와 같다.

잘 난체하는(4.83), 약삭빠른(4.19), 이기적인(3.79), 당찬(3.68), 기죽지 않는(3.62), 적극적인(3.60), 능동적인(3.42), 야무진(3.34), 자신감 있는(3.30), 주체적인(3.00), 똑똑한(2.77), 용기있는(2.64).

〈표 2〉 '벨라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

벨라진 사람의 특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죽지 않는	53	1	5	**3.62**	1.042
능동적인	53	1	5	**3.42**	1.046
당찬	53	1	5	**3.68**	1.070
도덕적인	53	1	3	1.70	.696
똑똑한	53	1	5	2.77	1.068
멋있는	53	1	5	2.04	1.018
무식한	53	1	5	2.25	1.090
배려심 있는	53	1	3	1.58	.602
분별력 있는	53	1	4	2.02	.951
불의에 굴하지 않는	53	1	5	1.96	.940
비겁한	53	1	5	2.09	1.005
성실한	53	1	3	1.81	.709
소극적인	53	1	4	1.64	.811
수동적인	53	1	5	1.55	.774
시원찮은	53	1	5	1.75	1.017
야무진	53	1	5	**3.34**	1.073
약삭빠른	53	1	5	**4.19**	.878
어리석은	53	1	4	2.00	1.000
용기있는	53	1	5	2.64	1.076
용렬한	53	1	5	2.23	.974
의리가 있는	53	1	4	1.75	.782
이기적인	53	1	5	**3.79**	1.150
인격적인	53	1	3	1.75	.757

자신감 있는	53	1	5	**3.30**	.932
자제력 있는	53	1	3	1.83	.700
잘 난체 하는	53	3	5	**4.83**	.427
적극적인	53	1	5	**3.60**	.947
정의로운	53	1	5	1.87	.900
주체적인	53	1	5	**3.00**	1.193
지식이 많은	53	1	5	2.49	1.031
지혜로운	53	1	5	2.02	.820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의 특성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아래의 <표 3>에서 보듯이, 무려 7가지 특성이 겹친다. 그러나 서로 겹치는 특성이 있지만,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은 특성의 순위에서 다르고,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도가 다르다. '으망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지만, '벨라진' 사람은 잘 난체하고 약삭빠른 사람이다. '으망진' 사람은 똑똑하고 분별력있고 지혜로우면서 용기있는 사람이지만, '벨라진' 사람은 분별력도 없고(2.02), 지혜롭지도 못하면서(2.02) 이기적인(3.79) 사람일 뿐이다.

〈표 3〉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의 비교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같은 점	당찬(4.66), 야무진(4.62), 적극적인(4.34), 기죽지 않는(4.26), 능동적인(4.26), 자신감 있는(4.21), 잘 난체하는(3.32).	잘 난체하는(4.83), 당찬(3.68), 기죽지 않는(3.62), 적극적인(3.60), 능동적인(3.42), 야무진(3.34), 자신감 있는(3.30).
다른 점	똑똑한(4.25), 주체적인(3.66), 용기있는(3.58), 분별력있는(3.43), 지혜로운(3.38).	약삭빠른(4.19), 이기적인(3.79).

이러한 차이점들은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의 차이점>에 대

해 자유롭게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한 의견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자유의견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으망진' 사람이 긍정적이고 주인의식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이타적이라면, '벨라진' 사람은 부정적이고 주인의식이 약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지적이다. 선택형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으망진' 사람이 도덕적(2.19) 혹은 인격적(2.40)인 사람과는 관련이 적다고 보는데, '벨라진' 사람과의 차이점을 요구받는 자유진술형 답변에서는 '으망진' 사람이 도덕적 혹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벨라진' 사람은 선택형 질문에서도 도덕적(1.70) 혹은 인격적(1.75)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지만, 자유진술형 질문에서도 그들은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어서 시류에 영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표 4〉 자유진술: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의 차이점

* '으망진' 사람이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당찬 사람이라면, '벨라진' 사람은 현학적이고 잘 난체하고 주제 넘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배움이나 지식이 많지 않을 지라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벨라진' 사람은 배움이나 지식이 많지 않으면서 매사에 잘 난체하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타인의 관점에서 똑똑함 등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벨라진'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 등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나설 때 나설 줄 아는 사람이지만, '벨라진' 사람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오히려 나서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실제 지식이 많은 사람인 동시에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고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벨라진' 사람은 실제 지식이 많지 않지만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말이 만은 사람이고 시류에 영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히 그리고 치밀하게 완성시키는 사람이라면, '벨라진' 사람은 일의 완성도와는 관계없이 잘 난척하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긍정적이라면, '벨라진' 사람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이지만, '벨라진' 사람은 주인의식이 약한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벨라진'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이타주의적이지만, '벨라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저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 간의 경계는 애매할 때가 있다. 그래서 '으망진' 사람이 '벨라진'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고, "거참 아명해도 경 으망진 놈은 불량(不良)을 하지."[16]라는 말이 쓰이는 바처럼, '으망진' 사람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지목될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되어야 할 점은 '으망진' 사람과 '으망진 체' 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으망진 체' 하는 사람이야말로 '벨라진' 사람이 아닐까 한다.

3.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

이제 '으망진' 사람을 '몰맹진' 사람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먼저, '몰맹진' 사람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몰맹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순서와 같다.

수동적인(3.98), 소극적인(3.96), 시원찮은(3.85), 어리석은(3.51), 무식한(2.72), 용렬한(2.57), 성실한(2.51).

16) 『濟州語辭典』, 479쪽.

〈표 5〉 '몰맹진' 사람의 일반적 특성

몰맹진 사람의 특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죽지 않는	53	1	5	1.64	.922
능동적인	53	1	4	1.55	.722
당찬	53	1	5	1.60	.927
도덕적인	53	1	4	2.28	.968
똑똑한	53	1	4	1.75	.875
멋있는	53	1	4	1.60	.716
무식한	53	1	5	**2.72**	1.215
배려심 있는	53	1	4	2.28	.968
분별력 있는	53	1	4	1.91	.791
불의에 굴하지 않는	53	1	4	1.81	.761
비겁한	53	1	5	**2.75**	1.072
성실한	53	1	5	**2.51**	.973
소극적인	53	1	5	**3.96**	.999
수동적인	53	1	5	**3.98**	.930
시원찮은	53	1	5	**3.85**	.928
야무진	53	1	5	1.51	.846
약삭빠른	53	1	5	1.53	.846
어리석은	53	1	5	**3.51**	1.154
용기있는	53	1	4	1.51	.669
용렬한	53	1	5	**2.57**	1.337
의리가 있는	53	1	3	1.96	.808
이기적인	53	1	4	1.75	.731
인격적인	53	1	4	2.11	.824
자신감 있는	53	1	5	1.74	.984
자제력 있는	53	1	5	1.98	.866
잘 난체 하는	53	1	4	1.40	.631
적극적인	53	1	4	1.45	.607
정의로운	53	1	4	1.92	.805
주체적인	53	1	4	1.60	.660
지식이 많은	53	1	3	1.83	.778
지혜로운	53	1	4	1.72	.744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의 구분은 명확한 것 같다. 두 사람의 인성적 특성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강하다. '으망진' 사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몰맹진'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시원찮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아래의 <표 6>에서 보듯이, 자유진술형 질문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의 차이점>에 대한 응답들에서도 확인된다. '으망진' 사람은 야무지고 당차고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주체적이지만, '몰맹진' 사람은 기가 죽어있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의 심부름꾼이나 되며 용기가 없어 위협이나 협박에 굴하는 사람이다. '으망진' 사람은 매사에 손해 보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몰맹진' 사람은 정반대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때로 '몰맹진' 사람이 희생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 연민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표 6〉 자유진술: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의 차이점

*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은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다.
* '으망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찾아서 정확히 하는 사람이라면, '몰맹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이방인이며 주눅이 든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능동적인 사고로 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몰맹진' 사람은 수동적이며 느리게 일을 처리하지만 순수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야무지고 당찬 사람인데 반해, '몰맹진' 사람은 기가 죽어 있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지 못하며 남의 심부름꾼이나 되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지만, '몰맹진' 사람은 매사에 사리판단이 흐릿하고 시원찮은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몰맹진'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띨띨한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주체적이고 용기있는 사람이라면, '몰맹진' 사람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용기가 없으며 위협이나 협박에 굴하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매사에 손해 보지 않는 성향이 있는 반면, '몰맹진' 사람은 정반대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 '으망진'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여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인 반면, '몰맹진' 사람은 자기주장이 약하고 남을 너무 배려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후자는 전자에 비해 연민, 동정심, 안타까움을 더 일으킨다.

Ⅳ. '으망진' 사람의 도덕적 덕성

이 장에서는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을 도덕적인 사람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의견조사에서는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의 관련성과 차이점, '으망진' 사람이 소유하는 도덕적 덕성에 대해 질문했고, 끝으로 '으망진' 사람·'벨라진' 사람·'몰맹진' 사람·도덕적인 사람 즉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서로간의 관련성과 차이점 등에 유의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 질문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을 비교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1.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

앞의 선택형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으망진'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대답하였다. '벨라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도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으망진' · '벨라진' · '몰맹진' 사람들의 도덕적임과의 관련성 정도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
도덕적인	2.19	1.70	2.28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은 도덕적임과 관련성이 거의 없고, '벨라진' 사람은 더욱 그렇다.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 간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자유진술형 응답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와 대표적인 견해들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8>와 같다.

〈표 8〉 자유진술: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의 관련성

	응답수	대표적인 견해
N	53	
무응답	27	
관련있다	8	* '으망진' 사람은 비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정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을 할 때 도덕적인 행동으로 평가된다. * 둘 다 적극적이고 사회규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 용기가 있고, 자제력이 있고, 정의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관련이 있다. *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에 이야기 할 수 있다. * 두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주인의식이 강하다. * 약한 또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관련없다	20	* '으망진' 사람은 똑똑하고 당차지만 도덕적으로는 약간의 유보적 견해를 드러낸다. 으망지다고 하는 것은 좀 잘 난체하거나 지나치다는 함의가 들어있다. * '으망진'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가치중립적이다. 즉 으망져도 비도덕적일 수 있고, 도덕적이어도 으망지지 못할 수도 있다. *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으망진'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격적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으망진'이란 수양이전의 인간성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 '으망진' 사람은 이기심이 먼저 작용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배려심이 먼저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으망진' 부도덕한 이가 많다.

<표 8>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53명 중에 반인 27명이 응답을 유보한 무응답자이고, 28명의 응답자 중 20명이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은 관련이 없다고 대답한다. 여기서 무려 50%의 무응답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망설여지지만, 앞의 선택형 질문 결과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으망진'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두 사람 간의 차이점을 묻는 자유진술형 질문에 응답한 이들의 대표적인 견해들은 아래의 <표 9>과 같다.

〈표 9〉 자유진술: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의 차이점

* '으망진' 사람은 일의 성과 등에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판단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 도덕적이라는 것이 이타성을 일정부분 함축한다고 보면, '으망진' 사람에게 그러한 이타성을 발견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 '으망지다'는 것은 영리하거나 똑똑하다는 개념이지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 도덕적인 사람은 인간의 도리와 보편적 진리에 입각하여 사리를 판단하지만, '으망진'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리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으망진' 사람은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사리판단은 잘하지만 공공성과 도덕성의 판단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으망진'은 우수하고 똑똑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중점이 있고, '도덕적'은 절제 등 마음을 강조한다.
* '으망진'은 적극성 · 분별성 · 지혜로움을, 도덕적은 인격성 · 품위성을 의미한다.
* '으망진'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살아가면서 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여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인 반면, 도덕적인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이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은 인간의 도리와 보편적 원리에 입각하여 사리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양심에 따라 살고 공공성과 이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으망진' 사람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사리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정성, 이타심,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는 도덕적임과 관련 없이 어떤 일에 대처하고 추진해 나감에 있어 자기 주도적이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응답자들이 합의하는 대체적인 관점인 듯 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임' 혹은 '인격적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보편적 원리에 바탕을 둔 사리판단, 공공성 혹은 공정성, 이타심, 배려하는 마음 등으로 언표되는 도덕은 근대이후의 의무윤리학적 전통에 토대한 도덕개념이다. 돌이켜 보면, '도덕적'(moral)이라는 용어부터가 근대적인 개념이다.[17] 도덕적인 사람이란 한마디로 '도덕적 관점'(moral point of view)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첫째,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의 기본원리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증할 수 있는 추론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도덕적인 사람은 내면적, 자율적 판단에 의해 행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셋째, 도덕적인 사람은 보편적 도덕원리로써 공정성 혹은 정의의 원칙을 가진 사람이다. 넷째, 도덕적인 사람은 정신적·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양심'이라는 도덕적 실천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요컨대, 근대 의무윤리학적 전통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비이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위하는 사람이라 하겠다.[18]

이처럼,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에,

17) 최병태, 『덕과 규범』(서울: 교육과학사, 1998 초판 2쇄), 51쪽.
18) 도성달 외, 『윤리학과 덕교육』(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30-34쪽.

'으망진' 사람과는 당연히 구별된다. '으망진'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말하자면 '思慮的(prudential)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의 <표 6>에서 보듯이, 차라리 '으망진' 사람보다는 자기이익을 챙기는데 서투른 '몰맹진'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의 개념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혹은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는 한, '으망진' 사람, '몰맹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모두가 일단 도덕적인 사람과는 관련이 거의 없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네 사람의 유형을 각각 비교하여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달라는 자유진술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견해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자유진술: '으망진', '벨라진', '몰맹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

* 일의 성과로 파악할 때, '으망진' 사람은 도덕적 인격적인 면보다 일의 성취도에 더 주안점을 둔 개념이다. '벨라진' 사람은 잘난척 또는 생색내는 등의 태도가 가미되고, 타인으로부터 시기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개념이다. '몰맹진' 사람은 일처리가 흐지부지하고 자기주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은 일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윤리적 인격적인 면에서 평가되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 '으망진'과 도덕적인 사람은 플러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몰맹진'과 '벨라진' 사람은 마이너스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 항목에서 도덕적인 사람은 나머지 셋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이다.
* '으망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으망진' 사람 중에 '벨라진' 사람은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나, '몰맹진' 사람 중에는 '벨라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으망지거나 벨라지거나 몰맹지거나 모두는 도덕적임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 '으망진' 사람은 '몰맹진' 사람은 아니다. '으망진' 사람 중에는 '벨라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벨라진' 사람 중에는 도덕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몰맹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으망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몰맹진' 사람은 '으망진' 사람이 아니다. '몰맹진' 사람 중에는 '벨라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중에는 '으망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벨라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며, '몰맹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 '으망진' 사람은 자기능력에 걸맞은 자세로 현명하게(약간은 자기중심적)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남에게 큰 해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벨라진'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나서는 사람 혹은 기대치 이상으로 나서는 사람으로, 전체적으로 남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몰맹진' 사람은 능력이 되어도 나서지 않거나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소극적인 사람, 즉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 '으망진' 사람과 '벨라진' 사람은 매사 보통에서 넘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으망진'에는 플러스적인 면도 많이 들어있는 반면, '벨라진'에는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농후하다. '몰맹진'에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못났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따라서 위의 세 어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도덕적인 사람은 동일선 상에서 함께 논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사람의 경우 '으망진' 사람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몰맹진' 사람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으망진' '몰맹진' 벨라진' 등은 사람의 타고난 기질에 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은 타고난 기질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마, 훈련 등을 거쳐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 '으망진'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벨라진'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며, 도덕적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 '으망진' 사람은 '벨라진' 사람도 '몰맹진' 사람도 아닌 그들 중간 위치에 존재하면서, '벨라진' 사람을 비판(견제)하고 '몰맹진' 사람을 끌어올려 사회적 균형을 도모함으로서 공익에도 모범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다. 특히 일상생활의 정치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대 대중민주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도덕성과 정치적 동물로서의 주체성을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서 존재가치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닐지?

<표 10>의 대체적인 견해에서 보듯이, '으망진' 사람은 '사려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능력에 걸맞게 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 타인들에게도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몰맹진' 사람은 자기 능력이 있더라도 어리석어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리고 '벨라진' 사람은 '사려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점에서 '으망진' 사람과 비슷하지만 자기능력에 걸맞지 않게 나서며 자기이익에 더 철저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타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도덕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로운 사람이기에 '으망진', '벨라진', '몰맹진' 사람들과 관련성

이 별로 없다. 요컨대, '으망진' 사람은 도덕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 '으망진' 사람의 도덕적 덕성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결과 및 논의와는 다른 아래의 <표 11>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선택형 질문으로 18가지 덕목을 제시하여 '으망진' 사람이 가지고 있을 덕성으로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체크하도록 하였다. 먼저, 그 결과를 보면 아래의 순위와 같다.

용기(3.89), 책임·협동(3.75), 신의(3.57), 공정성(3.53), 공동체의식(3.42), 근면·성실(3.40), 타인배려(3.36), 민주성(3.36), 정직(3.28), 절제(3.28).

〈표 11〉 '으망진' 사람이 소유하는 도덕적 덕성

으망진 사람의 덕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로효친	53	1	5	**3.11**	.934
정직	53	1	5	**3.28**	.988
절제	53	2	5	**3.28**	1.026
근면·성실	53	2	5	**3.40**	.793
생명존중	53	1	5	2.77	.891
타인배려	53	1	5	**3.36**	1.094
평등·인권존중	53	1	5	**3.19**	1.020
공정성	53	1	5	**3.53**	.973
신의	53	2	5	**3.57**	.797
용기	53	1	5	3.89	.974
책임·협동	53	2	5	3.75	.875
민주성	53	2	5	3.36	.811
애국·애족	53	1	5	3.02	.866

인류애	53	1	5	2.87	.941
공동체의식	53	1	5	**3.42**	1.027
환경보호의식	53	1	5	**3.00**	.899
성윤리	53	1	5	2.79	.885
정보윤리	53	1	5	2.91	.925

'으망진' 사람이 가지고 있을 덕성으로 응답자들은 여기서 제시된 덕목들 중 몇 개를 빼고 대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물론 그 점수도는 높지 않으나 지금까지 '으망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분명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말하자면, 응답자들은 근대 의무윤리학적 전통에 토대한 도덕개념과 '으망진' 사람은 관련이 없으나, 여기서 제시된 덕목들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된 도덕성의 지표인 18개의 덕목을 선정했던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도덕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관점은 (중간생략)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그리하여 구성원 상호에게 기대되고 선호되는 행동들이 있음을 전제로,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혹은 그러하기를 바라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는 지·정·의가 총합되어 나타나게 되는 인간됨의 모습)을 자각적으로 탐구하면서 그 방식을 몸에 익혀 가는 주체적인 태도 내지는 행위를 일관성 있게 나타나게 하는 인간적 특성」을 의미한다."[19]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도덕성' 개념은 德의 윤리학적 전통에 토대

19) 박효정·정광희, 앞의 책, 18쪽.

한 것으로, 이것은 앞의 근대이후 의무윤리학적 전통에 토대한 도덕 개념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덕의 윤리학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일단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혹은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의무윤리학은 '도덕적 동기'와 '사려적 동기'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려적인 것은 도덕적 동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지만, 덕의 윤리학에서는 사려적 동기와 도덕적 동기를 구분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차라리 "모든 덕은 일차적으로 그 덕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정도였다.[20] 그러나 사려적인 것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와는 구분된다. 사려적인 것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으망진' 사람은 사려적이지만, '벨라진'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한다.

덕의 윤리학에서 중시했던 '사려'는 '자기이익의 보전으로서의 사려'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잘 숙고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일종의 지혜로서의 사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프로네시스(phronesis), 즉 實踐知라 불렀고, 그는 이 실천적 지혜야 말로 모든 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 보았다.[21] 실천적 지혜 판단은 저 의무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원리 판단과는 다르다. 보편적 원리 판단은 상황의 맥락과 상관없이 모종의 보편적 원리를 적용하여 관련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판단이지만, 실천적 지혜 판단은 각각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행위인지를 현명하게 숙고하는 판단이다[22]. 그래서

20) 최병태, 앞의 책, 71쪽.
21) 최병태, 앞의 책, 62쪽.
22) 차우규 · 조난심 외, 『도덕교육학신론』(서울: 문음사, 2003), 19쪽.

덕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려적인 사람이다. '으망진' 사람도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덕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의 덕을 바탕으로 특정사회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다양한 덕목들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하다. 누스바움(Nussbaum)에 따를 때, 덕이란 "각각의 인간의 삶의 측면들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기 마련이다.[23]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덕의 위계가 각기 다르고 덕의 규정이 다를 지라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저 한국개발원의 '도덕성'에 대한 관점은 한국에서 덕있는 사람이 되려면 갖추어야할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견지에서 전통윤리를 참조하고 현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 지표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덕있는 사람은 저 18가지 덕목을 고루 습득하여 일상화된 인격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제주에서 '으망진' 사람도 용기(3.89), 책임·협동(3.75), 신의(3.57), 공정성(3.53), 공동체의식(3.42), 근면·성실(3.40), 타인배려(3.36), 민주성(3.36), 정직(3.28), 절제(3.28) 등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일관된 인격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으망진' 사람은 덕있는 사람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덕있는 사람은 앞의 18개의 덕목을 고루 발달시킨 사람이지만, 제주에서 '으망진' 사람은 이 중 8-10개의 덕목을 습득한 덕성의 소유자이다. 이 점에서 '으망진' 사람은 제주의 윤리문화에 의해 매개된 가치어이고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도덕인 셈이다. 여하튼, '으망진' 사람은 아래의 <표 12>과 같은 인성적 특성과 도덕적 덕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3) 최병태, 앞의 책, 225쪽.

〈표 12〉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징과 도덕적 덕성

인성적 특징	도덕적 덕성
당찬(4.66), 야무진(4.62), 적극적인(4.34), 기죽지 않는(4.26), 능동적인(4.26), 똑똑한(4.25), 자신감 있는(4.21), 주체적인(3.66), 용기 있는(3.58), 분별력 있는(3.43), 지혜로운(3.38), 잘 난체하는(3.32).	용기(3.89), 책임 · 협동(3.75), 신의(3.57), 공정성(3.53), 공동체의식(3.42), 근면 · 성실(3.40), 타인배려(3.36), 민주성(3.36), 정직(3.28), 절제(3.28)

V. 결론

이 글은 제주사회에서 예로부터 특정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용어로 전해오는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것의 도덕적인 사람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아울러 '으망진' 사람의 특성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보기 위해 이와 비교될만한 또 다른 평가적 용어인 '벨라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제주 문화에 익숙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내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첫째, '으망진' 사람은 당차고 야무져 기죽지 않고 용기 있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다. 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둘째, '으망진' 사람은 때로 혹은 보는 이에 따라 자칫 잘 난체하고 약삭빠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난체하고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은 '벨라진' 사람의 인성적 특징이다. '벨라진' 사람은 '으망진' 사람이 아니라 '으망진 체'하는 사람이다. 셋째, '몰맹진' 사람은 '으망진' 사람과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고 시원찮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으망진' 사람은 매사에 손해보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몰맹진' 사람은 정반대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때로 '몰맹진' 사람은 희생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 연민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넷째, '으망진'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사려적 동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위하는 근대 의무윤리학적 의미의 도덕적인 사람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으망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벨라진' 사람과 '몰맹진' 사람보다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무의미하다. '으망진' 사람은 의무윤리학적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도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다섯째, '으망진'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과 관련성이 있다면 덕의 윤리학적 관점에서이다. 덕의 윤리학적 전통에서 '사려'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행위의 동인이다. 그것은 자기이익의 보전으로서의 사려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실천적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으망진' 사람은 사려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섯째, 덕있는 사람은 특정사회·특정시대의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는 덕목들을 고루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일관된 인격적 특성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으망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으망진' 사람은 용기, 책임·협동, 신의, 공정성, 공동체의식, 근면·성실, 타인배려, 민주성, 정직, 절제 등의 덕목을 습득한 덕성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으망진' 사람은 덕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문화 맥락적이고 특수적인 가치어이다. 덕이란 인간 삶의 각각의 측면들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따라서 덕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국개발원이 규정한 18개의 덕목보다 더 많은 덕이 추가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 '멋있는 사람'이나 제주에서 '으망진' 사람은 한국과 제주라는 제한된

문화에 의해 매개된 가치어고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도덕이다. 따라서 이들 가치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윤리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 가치어들이 한국 혹은 제주 문화의 심층에 자리하는 윤리적 문화문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고, 주류문화의 변천사에 따라 이들 용어들의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도 분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생활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문화문법의 상호관련 속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할 때, 이 연구는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현재 제주문화를 생활문화로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견해들을 설문조사법에 의존하여 탐구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문화적 접근을 통한 '으망진' 사람의 심층적 탐구는 지난한 작업을 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으망진' 사람, '벨라진' 사람, '몰맹진' 사람이라는 가치용어는 현재 제주인들에게 생활문화의 한 측면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제주의 문화문법, 오늘날의 주류문화와 조류문화 등이 잡종으로 얽힌 채로 살아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늘날의 생활문화에 의해 매개된 '으망진' 사람의 특성을 탐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는 향후 제주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으망진'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할 인성과 덕성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한 응답자의 진술은 음미할 만하다.

> '으망진' 사람은 '벨라진' 사람도 '몰맹진' 사람도 아닌 그들 중간 위치에 존재하면서, '벨라진' 사람을 비판(견제)하고 '몰맹진' 사람을 끌어올려 사회적 균형을 도모함으로서 공익에도 모범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다. 특히

일상생활의 정치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대 대중민주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도덕성과 정치적 동물로서의 주체성을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서 존재가치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닐지?

참고문헌

『濟州語辭典』(제주도, 1995), 223;479쪽.

강봉수,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 일반신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24집(사단법인 제주학회, 2003. 12), 29-83쪽.

강봉수, "제주의 효규범에 대한 윤리문화적 접근", 『윤리연구』 제70호(한국윤리학회, 2008. 9), 87-123쪽.

김태길, "외형의 멋과 내심의 멋", 최정호 편, 『멋과 한국인의 삶』(서울: 나남출판, 1997), 27-46쪽.

김형효, "한국정신문화의 '이념형'을 찾아서," 한국국민윤리학회, 『한국민족정신 탐구』 93년도 하계 전국대학 교수세미나 자료(1993. 7. 7), 43-66쪽.

도성달 외, 『윤리학과 덕교육』(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13-80쪽.

박효정 · 정광희,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연구(Ⅱ)』(한국교육개발원, 2001), 33-57쪽.

박효정 · 정광희 · 유균상 · 원현주,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0), 51-76쪽.

차우규 · 조난심 외, 『도덕교육학신론』(서울: 문음사, 2003), 13-40쪽.

최병태, 『덕과 규범』(서울: 교육과학사, 1998 초판 2쇄), 153-250쪽.

Samuel Fleischaker, *The Ethics of Culture*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 ix-20.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RN&qid=3bG6a&q=%BF%E4%B8%C1%C1%F8&srchid

http://cafe.daum.net/jejuspeech/JGLF/12?docid=1BucG|JGLF|12|20080211040849&q =%BF%E4%B8%C1%C1%F8&srchid=CCB1BucG|JGLF|12|20080211040849

Abstract

Personality & Moral Character of '*Yomangjin*' Man in Jeju Culture

Kang, Bo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search personality & moral character of *'Yomangjin'(요망진)* man in Jeju Culture. First, this paper investigated to personality of *'Yomangjin'*, *'Bellajin'(벨라진), and 'Molmaengjin'(몰맹진)* man in point of comparative view. Second, it studied to moral character of *'Yomangjin'* man through making comparative study with *'Yomangjin'* man and Moral man. This study approached by method of survey.

Personality of *'Yomangjin'* man was stockily, firm, solid, courageous, self-confident. He was positive, active, subjective man. And he was prudent, sensible, ingenious, wise man. Now and then, *'Yomangjin'* man caused misunderstanding with self-conceited and shrewd man. But self-conceited, shrewd, and egoistic traits were personality of *Bellajin'* man. Personality of *'Molmaengjin'* man was opposite with *'Yomangjin'* man. He was passive, negative, foolish, unwise man. *'Yomangjin'* man had no correlation with moral man from viewpoint of Ethics of Principle, but had reference to virtuous man from viewpoint of Ethics of Virtue. He had virtues of courage, responsibility and cooperation, faith, fairness, sense of community, diligence and sincerity, being considerate of other, democratic

*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propensity, honesty, moderation etc..

Key Words

'Yomangjin'(욕망진) man, *'Bellajin'(벨라진)* man, *'Molmaengjin'(몰맹진)* man, moral man, virtuous man, personality, moral character.

교신 : 강봉수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mail : bingwoo@jejunu.ac.kr 전화 : 064-754-3269)

최초 투고일 2008. 12. 19
최종 접수일 2009. 2. 10